

학생 운반 급식 안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음식 섭취는 인간의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고대 인류는 이동 생활을 하며 수렵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확보했으나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음식은 생활문화의 변화를 이끌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그만큼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 개념을 넘어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못 할 경우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급식의 질과 안전성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재 작은 학교에서는 주변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운반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운반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66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며, 학생 수가 적거나 조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에서 시작됐다.

우리 대한민국은 꾸준한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운반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반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전남의 경우 조리된 음식을 최대 14km까지 운반해야 하므로 위생 및 식품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음식이 적정한 온도로 유지되지 않으면 세균 번식 위험이 커져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온 및 냉장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운반 도중 음식이 식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운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반 급식은 조리학교와 배식학교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조리원들의 업무 과중과 교육기관 간의 협업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운반 급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는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거점형 급식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운반 급식을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히 농어촌 학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이 먼 이야기만은 아니며, 시범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도내 작은 학

교에서 운반 급식을 다수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인 정책 추진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운반 급식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생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제도화해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계가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이다.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학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또한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운반 급식은 작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안전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이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생 건강과 급식의 질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이를 위해 운반 급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반 급식은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이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학생 건강과 급식의 질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교육의 기본 조건이므로, 늘어나는 운반 급식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社說

'솔라시도' 18년만의 기회 기필코 살려야

미국서 15조원 투자 양해각서

전남 서남해안 기업도시인 '솔라시도'는 지난 2003년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기획됐다. 당시 J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남군 산아·황산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 84.4km에 펼쳐지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다. 2025년까지, 여의도 면적(8.5km²) 10배 규모의 땅을 구성·삼호·부동·삼포·초송·송촌 등 6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대역사다.

무려 35조원대의 막대한 자본 유치로 특급호텔, 카지노,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춘 동북아 레저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안돼 6개 지구 가운데 3곳이 좌초됐고, 나머지도 활로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기불황과 정부 무관심으로 해외자본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매우 뼈아팠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 아랍, 일본, 중국 등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투자 불확실성에 결국 투자 실현으로는 이뤄지지 못했다.

전남도는 2013년 J프로젝트의 명

칭을 '솔라시도' (태양(Solar)과 바다(Sea)로 바뀐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사업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다행스런 계도 기후 위기 상황과 맞물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 운동이 확산됐다. 최근엔 전력다소비 산업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에 맞춰 지역 이전과 지역 설립 움직임에 외면받던 '솔라시도'가 조명 받고 있다. 전남도가 미국에서 투자사인 퍼힐스와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투자사가 계획대로 해남 구성 지구 일원 120만 평에 2030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자해 3GW 이상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한다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투자 실현 없는 양해각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투자 실현이 번번이 무산됐던 솔라시도가 18년 만에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미래 전남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다. 모든 걸 걸고 투자 실현을 기필코 이끌어야 할 것이다.

고객 신뢰 무너뜨리는 기아車 취업사기

공정한 채용 시스템 마련해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또 다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오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구직시장이 갈수록 좁아드는 상황에서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취업사기는 지탄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다.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기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기아차 채용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바로 세우야 할 때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기아차 퇴직 직원인 50대 A씨가 '기아차 광주공장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채용 혐의(사기)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6명에게 '자녀를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1명당 8000만~1억원씩 현금 총 5억7000만원을 받아 채용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노조 간부를 역임한 A씨는 자신의 취업 사기 행각을 둘러싼 물의가 일자, 지난 1월 돌연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이외에도 기아차에서 일어난 또 다른 취

업 사기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취업사기는 잇을 만하면 불거지는 고질적인 비리다. 취업사기가 오랫동안 횡행해왔다는 것은 노조의 영향력에 기댄 취업청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 관계자가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기아차의 신뢰와 사회적 가치마저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범죄다. 공정성을 잃은 부당한 채용은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는 청산돼야 할 구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아차에서 그동안 횡행해온 채용비리의 전모를 낱알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기아차도 그동안 사측의 묵인이나 방관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기아차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지역이나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6일(현지 시간) 인도 구자라트주 메흐사나 줄라산 마을 화장터에서 힌두 성직자가 시브라트리 축제를 맞아 재로 몸을 씻어내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뉴스스

서석대

"풍월은 사사로움이 없으니 머무는 곳마다 푸짐하고/도량이 큰 천지는 나를 한가하게 버려두네/아늑하게 거닐다 보면 만사가 절로 잊히고/드러누워 허공을 바라보니 지친 새가 돌아오누나." 여말선초 학자로 활동하던 탁광무(1330~1410) 선생이 광주 석곡동 인근에 정자 경령정을 짓고 은둔했다. 당대 정몽주, 정도전, 이색 등과 교류가 깊었던 선생. 고려말, 신돈의 전횡에 맞서다 광주로 낙향했던 그는 고려를 이끌던 몇 안되는 '권문세족'이었다. 광주를 뿌리로 둔 토성 광산 탁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600년 만의 결사 '탁노리'

지난 1879년 발행된 광주읍지에 '탁(卓, 노(盧), 이(李), 김(金), 채(蔡), 장(張), 정(鄭), 박(朴), 진(陳), 허(許), 반(潘), 성(成), 승(承)' 등 12개의 성씨가 나온다. 광산을 본관으로 하고 광주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린 토종 성씨들이다. 조선의 양반과 달리 고려의 지도층은 가문이 우선이었다. 특히 광산 김씨와 광산 노씨, 광산 이씨, 광산 탁씨 등은 지방을 통치하고 중앙정치를 연결하는 지역의 호족으로 자긍심이 높았다. 성씨와 본관도 개인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가문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들 토종 성씨 가운데 가장 이름을 떨친 가문은 광산 김씨다. 광산 노씨도 명문이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노씨 성을 가진 인물이 8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故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 토박이 '민'의 후손이다. 이선제와 이형원으로 대표되는 광산 이씨는 정여립의 기축육사로 큰 화를 당했지만 근래 토반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광산 탁씨도 수많은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으로 이름 값을 톡톡히 했다. 언론인이면서 향토사학자인 김정호 선생은 저서 '광산 본관 성씨 이야기'에서 광산 탁씨를 두고 '고려 현종을 전후 해서 광주 토반 가운데 가장 출세한 토박이 집안이 광산탁씨'라고 썼다. 광산을 본으로 하는 탁씨와 노씨, 이씨 등 광주의 토박이 성씨들이 '탁·노·리'의 계승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말선초, '탁·노·리'라는 명칭이 공식 문헌에 처음 등장한 지 무려 600여 년 만이다. 토성 성씨의 부침은 지역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뿌리는 광주의 뿌리와 다름 아니다. 지리로 인한 연대가 자연이라면, 혈연에 의한 연대 또한 어느 때나 존재해 온 생물학적 본능이다.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고, 광주의 과거를 통해 K컬처의 뿌리를 찾겠다는 '탁노리'. 법고창신을 기치로 광주의 뿌리를 찾아 이를 새로운 문화로 키워 나가겠다는 '600년 만의 결사'가 들쭉하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